

‘언론중재위원회’ 상징 MOST



이 책의 앞표지 제호는 『**언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사람’ 사이에 다리(교량)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벌마크입니다. 이를 보면 영화 한 편이 생각납니다.

미국 감독 보비 가라베디안이 체코에서 촬영해 2003년 개봉한 29분짜리 짧은 작품입니다. 제목은 「MOST」인데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해 아카데미상 단편영화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팜 스프링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도개교(跳開橋-배가 아래로 지나갈 수 있도록 위로 들리게 된 구조의 다리)를 조작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꼬마 아들이 방과 후 아빠 일터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열차가 다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다리는 위로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이를 몰랐던 건 열차가 정해진 시각보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시급히 알려려고 하지만 아빠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꼬마는 평소 보아두었던 대로 자신이 작동 레버를 당기려 시도하다가 그만 아래쪽 모터 사이로 추락하고 맙니다. 열차가 통과하도록 다리를 내릴 경우 그대로 압사당하는 위치에 떨어진 겁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그대로 두면 승객이 탄 열차가 강물로 빠질 상황. 진퇴양난의 급박한 처지에 놓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아빠는 갈등 속에 오열하다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다리를 내려 열차를 통과시킵니다.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한 승객들은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중 한 승객이 창밖을 보다가 열차를 향해 울부짖는 남성(아버지)을 발견하고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본 뿐.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되어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렸다고도 하고,

실화에 바탕을 두었다고도 합니다. 위원회는 언론과 사람(국민)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중재위원들은 신청인(국민)과 피신청인(언론) 간의 조정·중재 현장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 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안타깝습니다.

일도양단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이라 해도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중재위원으로서 과연 교량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의구심이나 죄책감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론의 사명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신청인 84.1점, 피신청인 78.1점(2015년)이라 다소 안심되지만, 개별 만족도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피신청인보다 신청인의 종합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건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직 언론인들 입장에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불러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썩 유쾌한(?) 일이 못 돼, 전직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피신청인 만족도가 3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위안이 됩니다.

영화 속 아버지의 사랑, 그 숭고함에는 못 미친다 해도 중재위원들은 그런 마음이짐으로 임하리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공정한 태도, 진솔한 자세와 경청, 겸손하면서도 품위 있는 심리 등은 모두 인간애가 깔려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영어에서 「MOST」는 최고, 최선을 의미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향할 상징입니다.